

#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0년 5월 뉴스레터 vol. 31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24%의 기적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채우고 비우고 우리 삶을 성공이나 실패로 말할 수 있을까

장례 후기 두 번의 장례식을 한겨레두레와 함께 했습니다

메멘토모리 모든 인간의 죽음

숫자로 보는 채비 작은장례에 대한 인식 조사

조합 소식 추모형 작은장례 서비스 브랜드 '채비' 런칭

##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세상을 충격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전대미문의 역병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이 역병은 전파속도나 치명률에서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면서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2020년 5월 현재까지도 인류는 패닉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국가의 의료역량을 총동원해 전쟁에 준하는 전방위적 방역활동을 펼친 끝에 기세를 잡아가고 있다. 끈질기고 능동적인 정부의 대처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행히 4월 초부터 코로나19의 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었고, 점차 수그러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할 만큼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5월 6일 현재 전세계 확진자는 3백61만5천380명, 사망자는 25만6천26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확진자 1만806명, 사망자 255명으로 단연 방역에 성공한 모범적인 국가로 꼽힌다. 우리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와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몇몇 국가의 의료체계는 포화 혹은 마미상태에 이르렀고, 시신처리마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미국에서 발생했다.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자 미국은 하트섬에 코로나19 사망자를 집단매장하기 시작했다. 하트섬은 뉴욕시 브롱크스 북동쪽의 외딴 섬이다. 길이 1.6km, 폭 530m의 외딴섬은 150년 동안 무연고 시신을 안치하는 묘지로 사용돼 왔다.

외신이 전한 사진을 보면 포클레인이 땅을 깊고 길게 파 놓은 곳에 여러 개의 관을 겹쳐서 한 번에 쌓아 올렸다. 이는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관이다. 사망자가 견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자 이를 대량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이탈리아의 상황도 무척 심각하다. 이탈리아 북부 병원의 영안실은 물론 예배당마저 관으로 가득 찼고, 안치할 묘지가 부족해 트럭에 실린 관을 방치됐다. 시신은 사망판정과 동시에 비닐봉투에 싸여 봉인되었다.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시신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시신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발 빠르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정해 시신을 처리하고 있다. 다행히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시신처리 시스템은 정상작동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장례방식과는 사뭇 다를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의 대기를 요청한다. 이때 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병실에서 환자의 면회가 가능하고, 환자 가족에게 사망 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한다. 이와 동시에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을 통보, 유가족에게 사망원인을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을 협의한다.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격리병실 외부 CCTV도 가능)한다.

화장 시에는 동행하는 유족, 운구요원, 화장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운구차량·화장시설 등을 소독하며, 장례종료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로써 ‘쓸쓸한’ 장례절차를 마치게 된다. 다른 나라에 견준다면 이마저 다행이라고 위로해야 할까. 최소한 짐짝 혹은 폐기물처럼 취급되지 않으니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는 이제 이전처럼 밥상을 마주하고 밥을 먹기도 어렵고, 주일마다 어깨를 붙이고 앉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을 타기도 어렵고, 클럽에 가서 몸을 부비며 소리칠 수도 없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었어도 ‘거리와 간격’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매 순간 행동을 제어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장례식 풍경마저 바꾸어 놓고 있다. 100여 년에 걸친 장례식 관습과 문화를 하루아침에 다른 모습으로 갈아치우고 있다. 장례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조의금을 계좌이체 한다. 장례식장에서 큰 빈소가 아닌 작은 빈소를 찾고, 가족끼리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다.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해 보이던 병원장례식장과 상조회사 중심의 3일장 문화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수많은 조화가 입구에 도열하고 문상객이 찾아와 조문을 하고 술과 밥을 대접하느라 정신 없이 바쁜 장례식 풍경에 익숙하다. 정작 장례식의 주인인 고인은 보이지 않고 상조회사와 장례식장 직원들만 바쁘게 움직인다. 정신 없이 청구서를 받고 돈을 지불하다 보면 어느 새 장례식은 끝나 있다. 장례식에서는 정작 유족마저 소외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전의 장례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장례 분야에서는 이것을 후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 동안 우리의 장례는 장사꾼들의 ‘돈벌이 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바가지와 불공정이 횡행했다. 이 기회에 작고 아름다운 이별, 추모가 살아 있는 가족 중심의 장례문화를 만들어 가자. 이제 우리가 꿈꾸었던 장례를 시작해 보자. 코로나19에도 어김없이 봄날은 찾아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자란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 우리 삶을 성공이나 실패로 말할 수 있을까

고 황OO님을 보내며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걸어온 이는 자활 사례관리 담당자다.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 형편이 어려운 이의 장례 지원에 관한 문의였다. 그에게는 일상이고 매번 처리해야 하는 비슷한 사안일 것이다. 그럼에도 매번 절실한 목소리다.

그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마음 어딘가가 움푹 꺼지는 고통을 느낀다. 너무 많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과 타인에 대한 공감이가 큰 사람은 이런 일이 매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통증 없이는 맞닥뜨릴 수 없는 일이다. 매일 자신의 마음이 우는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들이지만 사명감으로 그 일을 완수해낸다.

고인은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근 한달 간 집중 치료를 받았다. 그의 아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자활 근로를 했고 그것으로 병원비와 생계 유지를 했다. 아들은 군 입대를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입대 전 어떻게든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해보고자 고액 알바를 시작했지만 업체에 이용만 당하고 사기를 당해 수감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가족의 노력에도 그는 지난 3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그가 떠나자 고인의 아내와 아들에게는 병원비를 해결하느라 빌려 쓴 사채가 남았고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지 막막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온전한 이별식은 고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과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참담함을 느끼는 일이 남았다. 그로 인해 빚어지는 상처는 무방비하게 겪어야 한다. 이별을 위한 어떤 절차도 거치지 못한다.

우리는 쉽게 가난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실함에 대해 말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선부르게 표현한다. 하지만 운명적으로 지워진 삶의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누구도 가난을 선택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남은 것이 빛뿐인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은 타인의 삶에 대해 평가하기를 좋아한다. 누군가 살다간 삶의 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가능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실패했다거나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은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냥 살다가는 시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해될 수 없는 것은 밝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 애쓰며 살다 간다. 어떤 하루도 부정될 수 없이 살다가.

이별의 슬픔은 표현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마음의 깊이로 침잠한다. 오직 그 슬픔을 나누는 통증 정도 밖에는 접근할 수 없다. 그러고 나면 한 사람의 인생은 귀하다 못해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위대하게 살다 간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이만 갖는 영광은 아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환경, 생활, 생각, 실천 행위 등)를 직시하고 그것에서 출발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위치(자신이 그리는 이상향의 세계)를 정확히 가능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를 위해, 서 있는 위치를 옮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떠나 보낸 그도 위대한 존재였다.

그가 좋은 곳으로 잘 떠났기를 기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은주 | 서울조합 사무국장

## “두 번의 장례식을 한겨레두레와 함께 했습니다”



처음 아버님을 함께 보내 드리고서는 너무나 고마워서 꼭~ 감사하다는 글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결국 글을 올리지 못했고 그 일은 제 마음 속에 부채처럼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이번 봄에는 다시 어머님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어 망설이지 않고 최대영 과장님에게 부탁 드린다고 미리 전화 연락 드렸습니다.

배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노력해 본다고 하셨습니다.

2년 전 아버님을 보내드릴 때가 기억이 나더군요.

2년 전 아버님은 돌아가시며 수목장을 원한다는 유지를 남기셨습니다. 장례를 내가 치러내야 하는 일도 처음이었지만, 수목장은 더욱 낯설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물어 물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했고, 결국 들어서 하루 종일 국립수목원을 헤집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넓은 산속에서 아버님이 평안히 안식하실 수 있는 나무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두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3월의 그 황량한 산속을 서로 질문과 답을 해가면서 하루 종일 돌아 다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아버님을 모실 나무를 찾았고 우리는 형제처럼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어머님이 임종을 하시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 당일 반갑게도 다시 최대영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마치 든든한 비서와 함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처럼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는 평소 상조회사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의 슬픈 마음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이라는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모든 상조회사가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장례기간 내내 정말 자기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 \* 도우미 이모님들은 행여나 음식 낭비할까, 상주보다 더 신경 써 주었습니다.
- \* 상가준비 ~ 마지막 정리까지 모든 일정과 절차 하나 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비서 처럼 옆에서 꼼꼼히 챙겨 주었습니다.
- \* 관행 처럼 상조회사에 지급되는 리베이트까지 모두 조합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 \* 장례물품은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모두 원가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 \* 심지어 화장 후 구입해야 하는 ‘목관’ 하나도 화장장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주었습니다.
- \* 장례지도사님은 상주로부터 어떤 별도의 사례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 \* 발인을 위해 장례식장 정리를 할 때도, 정신 없는 가족들을 대신해 남은 물건을 박스에 담아 옮기기 좋게 미리 정리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입관식 때 ‘꽃 속에 누워 계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할 고인의 모습이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만들고 계시던 것이 그 꽃장식이었음을 그때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슬픈 순간이었지만……너~무 감사했고,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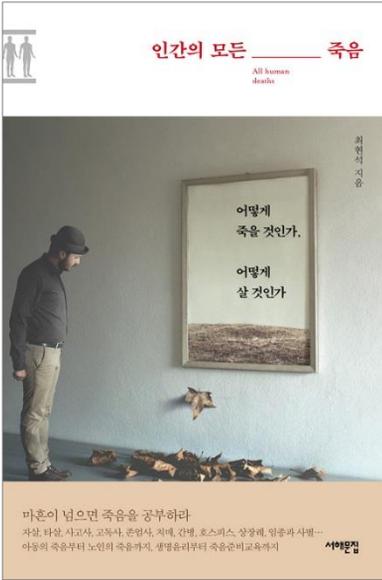
최대영 장례지도사님 덕분에 두 번의 장례식 모두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장례식 내내 보여주신 고인에 대한 배려와 상주가족에 대한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이 깊이 감사드리며, 소명의식을 가지신 진정한 한겨레두레의 프로 장례지도사님을 많은 분께 알리고,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착한 회사인 ‘한겨레두레협동조합’ 발전하시고 번창하셔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주원 조합원 가족이 올린 후기입니다





## 모든 인간의 죽음

최현석 | 서해문집

2010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OECD 회원국 등 40개국을 대상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얼마나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조사해 국가별 ‘죽음의 질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가장 죽음의 질이 높았던 나라는 영국과 호주였고, 미국은 9위, 일본은 23위, 우리나라는 32위로 하위권이었다. 그러나 5년 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80개국 중 18위로 커다란 개선을 이루었다[본문 83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임종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지원하며 관련 의료기관도 늘고 있고, 2018년 2월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도 시행되고 있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117개의 키워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임종과 사별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겪고 있는(또는 겪게 될) 사람들뿐 아니라, 언젠가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떠올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펼쳐보길 권한다. 나아가 의료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호스피스 간병인, 상장례 업체, 장례 의식을 집행하는 종교인, 미스터리 작가 지망생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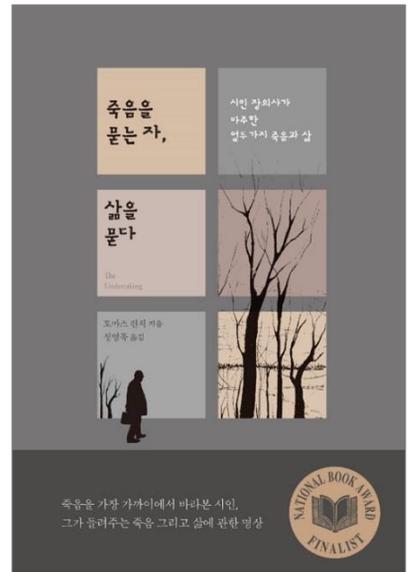
## 죽음을 묻는 자, 삶을 묻다

토마스 린치 | 테오리아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이는 누구일까? 가족? 의사? 성직자? 물론 생명이 소진하는 순간까지는 그들이 죽음의 과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일 것이다. 하지만 생명이 주검으로 변한 이후 그 과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는 바로 장의사일 것이다. 염부터 시작하여 주검을 묻는 행위까지 죽음의 모든 물리적인 의식을 맡은 자가 바로 장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직업인이 바라보는 죽음과 삶의 풍경은 어떤 것일까? 이 책은 그 특별한 바라봄을 서술한 에세이이다.

저자는 매년 이백여 명의 고향 주민들—여기에는 저자의 가족도 포함된다—을 묻으면서 죽음과 삶의 의미를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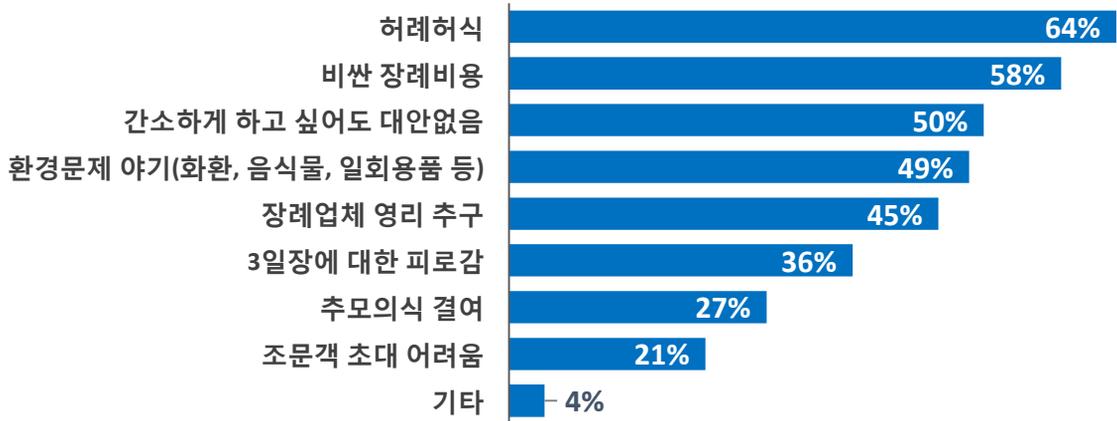
그는 ‘아버지의 죽은 몸’을 돌보면서, 죽은 인간의 몸에 대해 사색한다. 오늘날 우리는 죽은 사람들 때문에 당황하는데, 이것은 죽음이 집에서 장례식장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밖으로 밀려난 죽음’은, 우리의 필멸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죽음과 삶에 대한 저자의 마지막 사색은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그는 ‘내 장례를 위한 짧은 지침’에서 결국 준비된 자는, 자신의 장의를 맡은 자는, 자신이 아니라 너희들이라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남긴다.



## 1 기존 장례문화 문제점 '허례허식이 문제이다' 64%

- 기존 장례문화의 문제점으로는 '허례허식'이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싼 장례비용'과 '대안 없음'이 그 다음으로 나타남
- 유형을 보면 '장례 비용'에 관련한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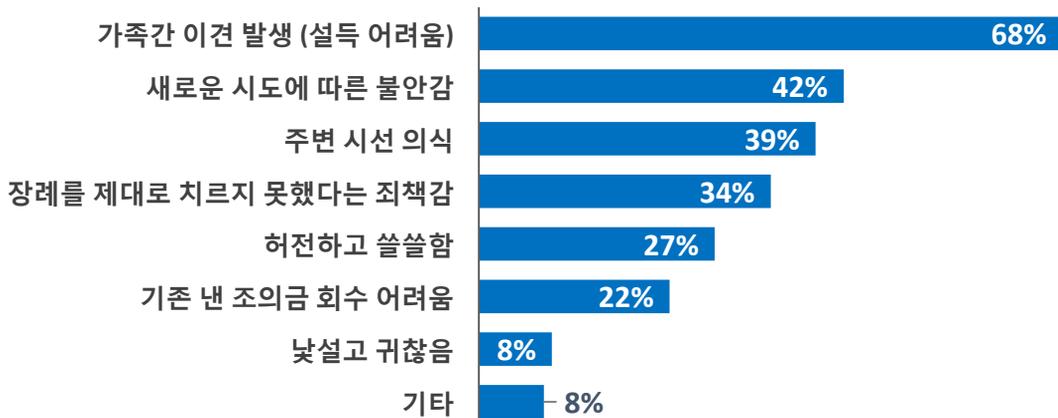
[그림] 기존 3일장, 장례 문화의 문제점 (중복응답)



## 2 작은장례 확산의 문제점 '가족간의 이견이 걱정된다' 68%

- 작은장례(허례허식 요소를 배제하고 추모의 깊이를 더한 장례 형식) 확산의 문제점으로는 '가족간의 이견'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시도의 불안감', '주변시선 의식' 순으로 나타남
- 장례형식은 개인이 아닌 가족과 조문객까지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회적 관습이 확산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보임

[그림] 작은장례 확산에 예상되는 문제점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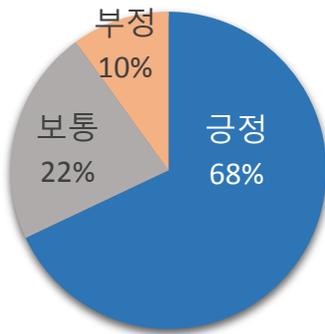


\*자료출처: 작은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한겨레두레 조합원 496명 포함 19세 이상 전국 남녀 총770명. 201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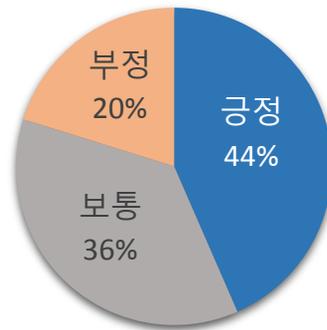
### 3 작은장례 선호도 '나의 장례는 추모식이 있는 작은장례로 하고 싶다' 68%

- 본인 장례의 작은장례 희망비율은 68%, 가족 장례는 44%로 나타남
- 가족의 작은장례 부정적 의견은 20%로 본인 작은장례 대비 2배 높게 나타남
- 본인의 장례는 희망할 수 있어도 가족의 장례는 본인만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보임

[그림] 본인 장례, 작은장례 희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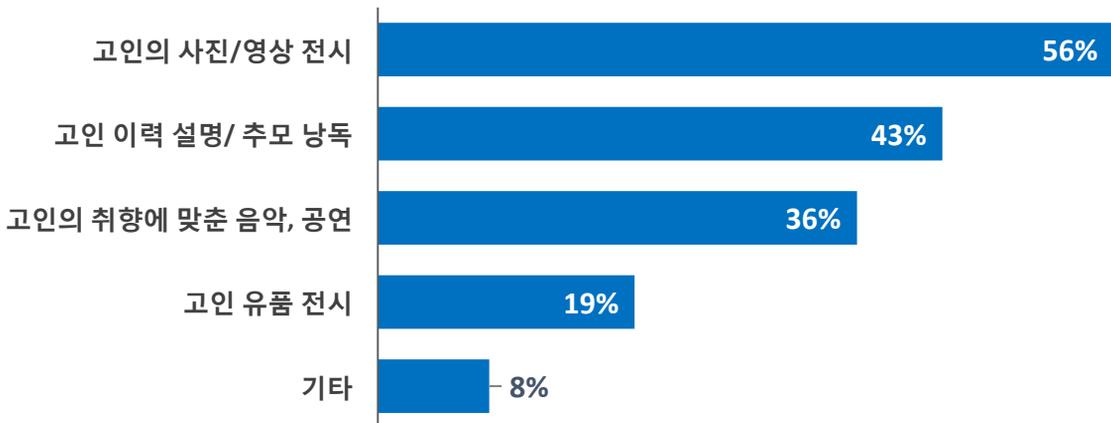
[그림] 가족 장례, 작은장례 희망 비율



### 4 가장 선호하는 작은장례 형태 '고인의 사진/영상을 전시' 56%

- 고인의 생전 사진과 영상을 전시하는 것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인 이력 소개/추모 편지 낭독', '고인의 취향에 맞춘 음악 공연' 순으로 나타남

[그림] 가장 선호하는 작은장례 형태 (중복응답)



\*자료출처: 작은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한겨레두레 조합원 496명 포함 19세 이상 전국 남녀 총770명. 2019. 7)

## 추모형 작은장례 서비스 브랜드 '채비' 런칭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작은장례 서비스 브랜드 '채비'를 런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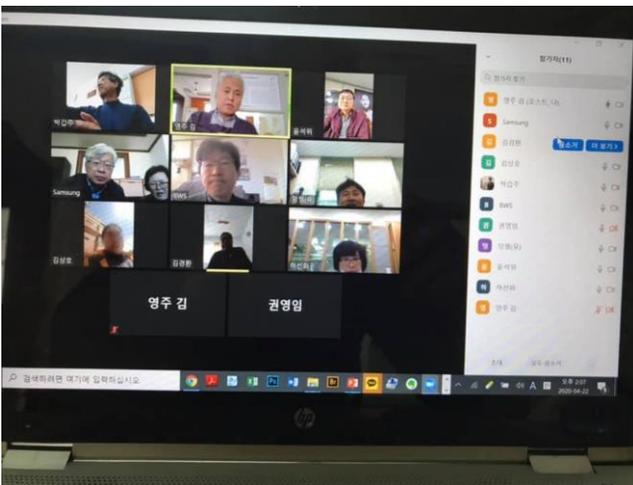
채비 로고는 '매듭'과 '흰나비'가 모티브입니다. '매듭'은 삶의 마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흰나비'는 죽음 이후 우리 존재를 아름답게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새로운 장례 문화를 선도할 한겨레두레의 브랜드를 응원하고 지켜봐주세요.

[리뉴얼 홈페이지 클릭](#)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38차 이사회 (2020년 4월 22일)



제 38차 연합회 이사회가 코로나19 정국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다소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각 연합회 이사님들의 협조로 두 시간에 걸친 회의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줄인 덕분에 먼 지역에서도 참석이 원활했고, 아무래도 대면보다 소통이 어려우니 회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한겨레두레는 조합원의 힘으로 코로나를 뚫고 전진 중입니다.

## 서울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장례지원 사업

‘돈 없으니 죽는 것도 부담스럽다’라는 우스개 말이 생길 만큼 장례문화는 급속도로 상업화 되었습니다. 장례식 비용은 물론 장례 용품까지 고가로 치러지면서 고인을 애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경제적인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인을 품위 있게 떠나 보내기 위한 장례의례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자본화된 장례 문화를 개선하고 추모중심의 장례문화를 위해 만들어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대상자격: 저소득층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조합원/ 조합원 가족/ 조합원 이웃
- 신청방법: 1588-9517/ 1800-9517 / master@handurae.org
- 신청기간: 2020.7.30.까지
- 지원내용: 18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지원

| 구분       |          | 내용                                    |
|----------|----------|---------------------------------------|
| 인력지원 서비스 | 장례지도사    | 장례지도사 1명(3일)<br>입관시 1명 추가지원           |
|          | 도우미      | 1명당 (10시간)                            |
| 고인용품     | 관 (화장시)  | 오동나무 45mm<br>황토유골함                    |
|          | 수의 (준비시) | 고급수의<br>꽃관장식                          |
|          | 입관부속품    | 관보, 명정 등 일체                           |
|          | 상복및 의전용품 | 상복 남 2벌<br>상복 여 2벌<br>기타부속품 초, 향 등 일체 |
| 장의차량     | 엠블런스     | -                                     |
|          | 버스       | 택1, 왕복200km                           |
|          | 리무진      |                                       |
| 꽃장식      | 제단장식     | -                                     |
|          | 헌화용 국화   | -                                     |
| 기타       | 장지 상담    | 납골당, 수목장, 매장, 해양장 등                   |
|          | 이장, 개장   | 이장, 개장 서비스 알선 및 안내                    |

\*장례발생시 연락처: 1588-9517/ 1800-9517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장례서비스 상담·긴급출동)

\*신청서는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문화공간 ‘채비’ 는 공사 중



‘채비 문화공간(충무로 소재)’이 6월 오픈을 앞두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현재 공정률 60%).  
 채비 문화공간은 한겨레두레의 전용 작은장례식 공간으로 사용되며 평소에는 강연, 문화, 휴식 시설로 활용 될 계획입니다.  
 채비 공간에서 조합원과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 채비뉴스레터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조합이나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조합원에 관련한 소식(개업, 사업 소개 등)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

-보낼 곳: [master@handurae.org](mailto:master@handurae.org)

**4월**

인미숙 조합원 시모상  
 이기석 조합원 부친상  
 이주원 조합원 모친상  
 박문식 조합원 처남상  
 차한영 조합원 모친상

송영섭 조합원 빙모상  
 정구일 조합원 부친상  
 최영숙 조합원 시부상  
 김성재 조합원 모친상  
 진현경 조합원 누이상

정효은 조합원 모친상  
 전문성 조합원 모친상  
 최 웅 조합원 부친상  
 권정은 조합원 시모상  
 김대훈 조합원 지인상

**3월**

우 석 조합원 모친상  
 이정석 조합원 부친상  
 신용조 조합원 부친상  
 안승섭 조합원 빙부상  
 백형기 조합원 빙모상  
 박은진 조합원 모친상

김민정 조합원 모친상  
 김정수 조합원 모친상  
 이현실 조합원 지인상  
 문혜정 조합원 시모상  
 이 병 조합원 아우상  
 이흥석 조합원 부친상

이창곤 조합원 모친상  
 김재수 조합원 모친상  
 조건웅 조합원 모친상  
 권운혁 조합원 모친상  
 정규호 조합원 모친상

**2월**

한소영 조합원 시모상  
 김흥래 조합원 빙모상

장재규 조합원 부친상  
 심상욱 조합원 부친상

이용규 조합원 부친상  
 윤선자 조합원 시모상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 하는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12. 2층

[www.handure.org](http://www.handure.org) | [www.chaebi.life](http://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